

‘1200년 인연’…완도, 일본 야마가타시와 우호협력

완도군이 1200여년의 인연을 이어온 일본 야마가타시와 우호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21일 완도군에 따르면 장보고 대사와 일본 고승 엔닌이 맺은 1200년 전 인연으로 일본 야마가타시와 우호 증진·협력을 위해 최근 야마가타시와 도쿄시를 방문했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장보고가 일본으로 와 엔닌을 배에 태우고 당에 돌아갔다’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장보고 대사의 큰 도움을 받았으며, 장보고 대사와 엔닌의 인연은 특별하다.

엔닌이 은인이라 여기는 장보고 대사는 828년 완도에서 청해진을 설치하고 일본과 중국,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주도했다.

군은 이번 일본 방문으로 한일 역사적

신우철 군수 등 방일…수산·문화·경제 분야 협력 확대
Pre 완도국제제해조류박람회 홍보·수산물 수출 논의도

교류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역 간 수산, 문화, 경제 분야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2026 Pre 완도국제제해조류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박람회 홍보, 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신우철 완도군수와 김양훈 군의회 의장, 해조류 박람회추진단, 시장개척팀 등이 동행했다.

신우철 군수와 일행은 미야기현 마츠시마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유통 구조와 소비 트렌드를 살폈으며, 미야기현 수산 기술 종합센터를 찾아 수산 연구·기

술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야마가타시를 방문해 시장, 의장, 상공회의소 연합회장과 면담을 갖고 청해진 설치 120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우정 상징물 제막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완도 수산물 일본 시장 진출과 2026 Pre 완도국제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 엔닌이 창건한 릿사쿠지(야마테라)를 찾아 장보고 대사의 해상 네트워크 동아시아 불교와 문화 교류에 기여



신우철 군수 등이 도쿄 이온몰 본사를 방문해 매장에서 판매 중인 완도 전복을 살펴보고 있다.

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장보고-엔닌 우호 상징 탑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눴고, 도쿄를 방문해 도쿄시 시장, 일본 전역에 160개 이상의 점포를 보

유한 이온몰 본사, TWJ 토요미 센터와 활어 센터, AT 도쿄지사 등을 견학하고 수산물 유통·물류 시스템을 살펴봤다.

아울러 5월 개최될 ‘2026 Pre 완도국제제해조류박람회’의 수출상담회에 일본 바이어 초청과 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동경한국상공회의소의 신년 하례회에도 참석해 한일 경제인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장보고 대사와 엔닌 스님의 교류로 이어진 인연이 한일 양 지역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야마가타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산, 문화, 경제 분야 전반에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 3km 숲길을 가득 물들인 아기동백.

신안 ‘섬 겨울꽃 축제’, 붉은 아기동백에 매료

4만여 관광객 3km 아기동백꽃 숲길서 추억 쌓아

신안군은 올 겨울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에서 ‘섬 겨울꽃 축제’를 개최해 4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12월 19일 개막해 지난 18일까지 열려, 방문객들이 차가운 겨울 붉게 피어오른 아기동백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축제 기간 동안 약 2만 그루의 아기동

백나무에서 피어난 4000만송이의 붉은 아기동백꽃이 3km 숲길을 가득 물들이며 한겨울 절경을 이뤘다. 서늘·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방문객들은 겨울 바다와 어우러진 이색적인 붉은 꽃길을 걸으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특히 전망대와 천사날개 포토존 등 촬영 명소가 큰 인기를 끌었으며, 소원지 쓰기·아기동백 염서 만들기, 동백 그림 그

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에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적극 참여했다.

분재정원 내 저녁노을미술관에서는 전문 작가들의 동백 테마 전시가 진행돼 문학적 감동을 더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활짝 핀 아기동백처럼, 축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얻으셨기를 바란다”며 “축제는 끝났지만 아기동백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으니 지속적인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진도 ‘찾아가는 건강버스’로 군민 찾아간다

원스톱 이동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지속적 확대”

진도군은 최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버스’의 개통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찾아가는 건강버스는 진도군보건소를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전문 보건의료 인력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운영하는 ‘원스톱 이동형 보건의료 서비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과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건강버스에서는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한방 진료와 상담 등 기본 처치를 비롯해 혈압과 혈당, 골밀도검사 등이 진행되며,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 영양, 정신, 치매 인식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구성돼 있다.

또 검사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등록 관

리’를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연계된 사후관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건강버스는 주민 생활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원스톱 보건의료 서비스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건강버스의 운영 일정과 방문 마을은 읍·면 사무소와 진도군보건소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목포, 장기요양재가의료지원 강화

장기요양 대상자 의료공백 해소·협력체계 구축

목포시가 장기요양대상 어르신들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목포시의료원과 손잡고 ‘장기요양재가의료센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목포시의료원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급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 돌봄을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가의료 대상자 발굴과 연계, 의사·간호사 방문진료와 건

강관리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요양 재가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이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능 알로에베라겔 추출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알로에